

위대한 유산

변 재영

산과 물이 맑고 인심이 좋아 '삼청의 고장'으로 불리는 경북 청도의 용각산 자락에, 일찍이 아버지께서는 서당을 열고 마지막 훈장으로 계셨다. 후학이래야 중등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못되는 스물 남짓한 아이들이 고작이다. 하지만 문중의 종친어른이기도 한 아버지께서는 제례와 길흉사의 집전, 작명, 침술 등 종무는 물론 고을의 대소사까지 주관하시느라고 늘 하루해가 짧았다. 특히 입춘방을 써 붙이는 정초에는 동네 전 가옥에 붙일 '춘축'을 쓰느라고 날밤을 새우기도 하셨다. 돈이 되어서 하는 일은 아니다. 우리 집 형편으로는 필묵과 한지 값도 부담이 되었지만 모두 무료봉사다. 글방에서 공부하는 학동들 역시 월사금대신 서당에 군불을 지필 수 있는 땀나무 한 짐이면 족했다.

쌀 한 톨 콩알 하나 하늘로 알고 살던 그 시절, 동네 팔구할은 중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못되었다. 나 역시 초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형편이 어려워 농사일을 도왔다. 모든 것을 몸으로 때우는 농촌생활은 참 어렵고 고단하다. 장정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우리 가족은 나무하랴 김매랴 산야에 땅거미처럼 붙어살았다.

선비는 무릇 곤궁하여도 의리를 잃지 않고, 출세하여도 도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했던가. 청렴과 예절을 삶의 숙제처럼 곳곳이 지켜내려는 훈장님은 이런 가족의 고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묵향에 절여 사셨다.

동네 사람들은 학문과 바른 인품을 소유하고 어려운 일에는 자신의 일처럼 나서주는 아버지를 공경했다. 따지고 보면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할 뿐 챙기는 것이 없으니 존경하는 건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아버지가 싫었다. 차라리 까막눈에 도별꾼으로 인간송충이 대접을 받는 앞집의 바우 아버지가 부러웠다. 가족만은 편하게 하기 때문이다. 내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어머니와 함께 농무에 시달리는 것이 모두 경제력이 없는 아버지의 탓이라고 여겨졌다. 의리가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이타적 삶만 강조하시는 아버지는 진정 안빈낙도의 삶을 즐기는 것 같아 야속한

마음까지 들었다.

훈장님을 아버지로 둔 어려움은 육체적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엄격한 밥상머리 교육은 차라리 고문이다. 글자의 깨우침에는 다소 후하지만 예절에는 연습이 없다. 한 번의 실수에도 매질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런 깐깐한 훈육은 동네에서도 마찬가지다. 남녀고하를 막론하고 골목에서 격식에 맞는 인사를 하지 않고 대충 목례로 지나가다가는 혼쭐이 나기 십상이다. 장중한 위엄을 가진 외모와는 달리 아버지의 속내는 부드러웠지만 버릇이 없거나 옳지 못한 일을 하면 어른일지라도 대중 앞에서 뺨까지 치는지라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한번은 나보다 한참 형님뻘인 동네 청년이 모친을 구박한 것을 두고 나무라는 삼촌을 흥기로 찌르고 눈이 뒤집혀 온 동네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간적이 있다. 마을이장이 불이 났을 때나 울리는 비상종까지 난타하여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만 흥기까지 든 포악한 그를 저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때 질긴 삼노끈을 포승줄로 들고 오신 아버지께서 주저 없이 결박을 짓고 무릎꿇음을 시킬 정도로 매사에 두려움은 물론 거침이 없고 당당하셨다.

그 시절 나는 앞집에 사는 동갑내기인 물바우 형제와 딸나무를 하러 다녔다. 물바우 형제는 쌍둥이다. 그들에게 용수, 용암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동네사람들은 형제를 싸잡아 물바우(水巖)라고 불렀다.

부전자전이라고 했던가. 부친과 봉어빵 얼굴을 한 그들은 남의 도래솔까지 베어다 팔아먹는 아버지의 심보까지 속 빼닮았다. 말림갓이 없는 우리들은 나무 한 짐을 하기 위해서는 재를 넘어 멀리 국유림이 있는 깊은 산까지 가야했다. 하지만 두 형제는 해거름이 될 때까지 야산 기슭에 숨어 빈둥대다가 몰래 말림갓에 들어가 올곧은 나무만 순식간에 배어간다. 심지어는 남의 나뭇가리에 손을 대기도 했다.

유난히 겁이 많은 나는 양심이 없는 그들의 꼬임을 뒤로하고 늘 혼자 고

개를 넘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편했다.

열 번 짝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했던가. 두 눈 딱 감고 한번만 인간 송충이가 되자고 각오했던 그날 저녁이다. 서당에서 돌아오신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렇잖아도 심장이 쿵쾅거리 좌불안석이던 나는 결국 올 것이 오고 말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둥구리 어디서 해왔노?”

도끼눈 앞에 나는 얼굴만 붉어질 뿐이었다. 나무의 생김새만 보면 누구 멧갓의 나무인지 손바닥 보듯이 흰히 꿰뚫고 있는 아버지 앞에 서툰 변명은 화만 키운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나뭇갓에 들지 않겠습니다.”

“잘못한걸 알면 얼른 나뭇짐을 챙겨지고 앞장 서거라.”

그 민망한 나뭇짐은 말림갓 주인집으로 향했고, 아버지께서는

“자식을 잘못 가르쳐 죄송하다.”

며 몇 번이나 아우뻘인 산주에게 고개를 조아리고는 화목을 넘겨주고 돌아왔다. 동네에서 예절바르기로 소문난 내가 도벌꾼이 되었다는 사실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다. 더욱 견디기 어려운 것은 고매한 삶을 목숨으로 여기는 훈장님의 얼굴에 먹칠을 한 후회와 아픔이었다.

그날 저녁 아버지께서는 쪽마루에 걸린 가훈(淸心:청심)을 두고 긴 훈육을 시작 하셨다. 해방 후 순사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이라고 한다. 아버지께서 거동이 불편한 동네어른들의 머리를 깎아준 것이 빌미가 되어, 온 동민들 앞에서 새파란 순사에게 뺨을 맞고 이발 기구를 압수당한 것이다. 동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효심에서 한 봉사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 동네 초입에 있는 이발소에서 촌지를 주고 사주한 일이란다. 성난 동민들이 장터에 있는 이발소로 옮겨 가는 바람에 그 이발관은 문을 닫아 걸었다고 한다. 치욕의 통한을 생각하면 잘코사니에 속이 후련하지만 뜻하지 않은 한 가정의 몰락은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고 만 것이다. 그래서 청렴을 교훈으로 삼고, 탐욕을 경계코자 청심(淸心)을 가훈으로 걸었다고 한다.

그동안 이 곡절한 가훈을 그저 목민심서에서 옮겨온 보타정도로 간과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오직 흠 없는 마음으로 살려는 아버지를 이해하는 순간 그동안의 날선 마음은 봄눈 녹듯이 사라졌다.

생각이 많았던 그날, 밤이 이슬하도록 청렴을 부끄러운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겼다. 그 후 농사일에 염증을 느낀 나는 명심보감을 접고 '통신강의록'으로 늦깎이 공부를 시작했다. 검정고시를 거쳐 1972년 총무처가 시행하는 세무직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남들은 부러워했지만 아버지께서는 검은돈의 유혹이 걱정되어 못마땅해 하셨다. 마침 공무원 정원의 95%운용이라는 제도가 생겨 소요가 많은 부처로의 이동이 가능한지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체신관서에 발령을 받았다.

흡족해 하시던 그 청백리는 몇 년 뒤 가훈 한 점만 유산으로 남긴 채 육순 중반에 먼 길을 가셨다. 맑은 마음으로 살라는 가훈 덕에, 내 뜻과는 달리 포도대장으로 통하는 감사실장 등 청렴을 필요로 하는 부서를 두루 거치며 부패방지에 노력하다가 지금은 편한 백성이 되었다.

이제 아버지께서 물꼬를 터놓은 청렴의 물결은 차세대로 흘러가고 있다. 딸애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다. 가정방문 오신 선생님이 "자유가 효를 물어버린 이 시대에 현대판 심청을 만난 듯하다."고 탄복하시던 그 소녀는 지금 교편을 잡고 있다.

몇 해 전 일이다. 한 학부모가 신학기에 10만 원짜리 구두티켓 한 장을 보내왔다. 딸내미는 마음만 고맙게 받겠다는 메모지를 넣어 돌려보냈다. 하지만 그 애물은 다시 돌아왔다. 학부모 또한 한 고집 하는 분이라 설득은 통하지 않았다. 그러기를 수차례, 결국 딸애가 백기를 들었다. 시비를 떠나 자존심싸움으로 학부모를 갈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딸애의 대답이다. 그날 딸애는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 구두티켓을 쪽쪽 찢었다. "애구 아까워라, 그럴 바엔 몰래 얼마나 줄 일이지" 속 모르는 집사람과는 달리 나는 가훈을 지키려는 가상한 마음에 흐뭇한 생각이 들었다.

밤손의 습성을 끊지 못한 고향동네 앞집의 물바우 형제는 10년 전, 대구·부산고속도로가 개통될 때 토지수용보상금을 서로 많이 갖겠다고 혈투를 벌이다 노모를 죽이는 패륜까지 저질렀다. 이처럼 칼에 죽는 육체보다 돈에 죽는 영혼이 더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청렴이 없는 사회에 올바른 싹이 자라나기는 어려운법. 사소한 유혹부터 절제하여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돈으로 행복을 살수는 없지 않는가. 온 국민의 가슴에 양심을 가꾸어 별처럼 아름다운 청렴의 가치를 공유하면 '청렴韓 세상'은 오고야 말 것이다.

긴 세월이 흘러간 지금 돌이켜보면 보잘것없는 땀나무 한 짐의 도벌조차 용납하지 않는 냉엄한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결코 오늘의 나는 없을 것이다.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 삶의 향기를 주는 불후의 자산이다. 장맛비가 줄금거리는 이 밤, 사랑의 매를 맞던 그 시절이 새삼 그리워지는 것은 웬 일일까. 태산보다 마음의 거울을 불립문자로 남겨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싶다.

'무릇 위대한 유산은 황금이 아닌 청렴이다.' 이것이 내가 이모작 삶에서 얻은 교훈이다.